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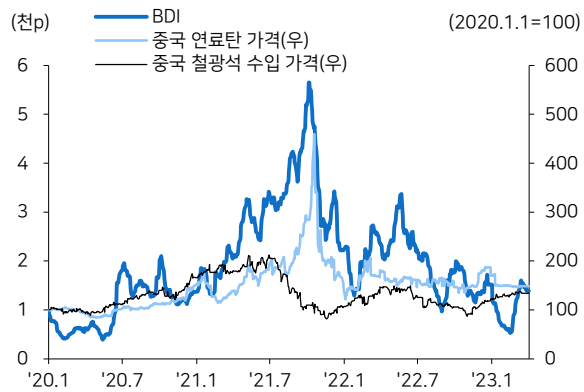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4. 7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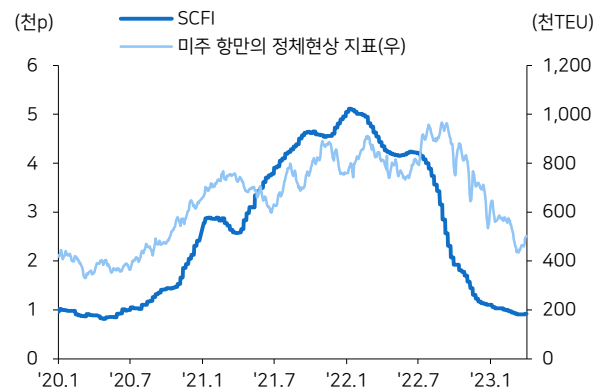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60.0p(+3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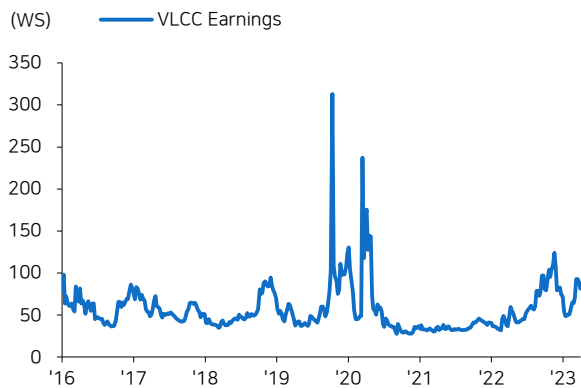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23.8p(+15.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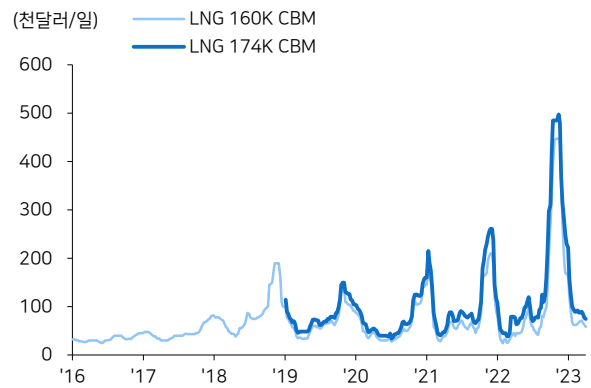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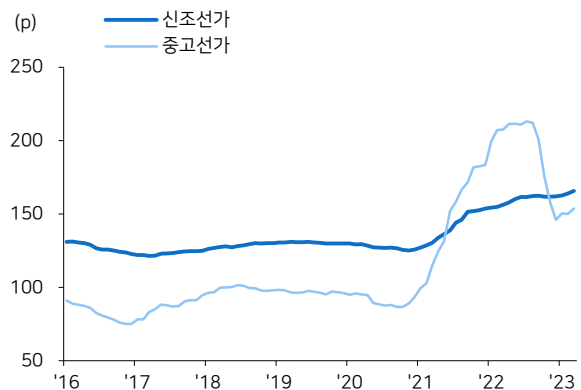
81.5p(-7.6p WoW)



LNG Spot 운임

58.5천달러(-4.5천달러 WoW)
75.0천달러(-2.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5.6p(+0.4p WoW)
153.5p(+1.9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53.0달러(-3.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ajor South Korea yards to build new capacity as demand is set to remain hot

한국 대형 조선소들이 2030년까지 수요 강세를 전망하며 생산량을 늘릴 예정으로 보도됨. 2000년대 슈퍼사이클과 같이 신규 도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현재 설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으로 알려짐. 현대삼호중공업은 1.12억달러를 투자해 안벽을 확장할 계획임. 삼성중공업은 중국 Zhoushan CIMC Chang Hong Shipbuilding과 협력해 2024년까지 컨테이너선 hull 블록을 공급받기로 계약함. (Tradewinds) (<http://bit.ly/3Mm2mZ1>)

Samsung Heavy Industries eyes Chinese yards for FLNG modules work

삼성중공업이 중국 조선소와 20,000톤급 FLNG 2척의 모듈 하청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보도됨. 각각 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상에서 사용할 선박임. 삼성중공업은 국내 인건비 및 강재가격 상승으로 아웃소싱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bit.ly/3ZMbKBJ>)

HD현대중공업 회사채 2배 늘려 2,000억 발행

HD현대중공업이 회사채를 1,000억원 발행하려다 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건조 대금을 2~3년 뒤에 받는 계약 구조상 조달 금액은 전부 선박 건조에 쓴다고 언급됨. LNG선 4척 건조 비용으로 쓸 계획임. (서울경제) (<http://bit.ly/3nSlzY9>)

Shipyards prices creep up again amid rising costs and tight capacity

예상보다 많은 발주 문의가 원자재 가격 인상 및 도크 부족과 맞물려 신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브로커들은 춘절 이후 글로벌 불경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조선 문의가 잠잠할 전망으로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선주들의 신조 문의가 증가했다고 알려짐. 신조 가격 상승은 후판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Clarksons에 따르면 지난 3달간 발주량 35% 감소에도 신조선가는 1.4% 증가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bit.ly/3Go4qfc>)

곧 컨테이너선 40척 이상 발주 러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컨테이너선 발주 러시가 재현될 전망으로 보도됨. 현재 글로벌 상위급 컨테이너 선사들이 건조 협상을 진행 중인 물량만 40척 이상으로 약 55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건조 선석은 조선업체들이 대형 고객사들을 위해 유보해두었다고 알려짐. CMA CGM과 Hapag-Lloyd는 각각 4,000TEU급 메탄올 DF선 10척, 6척씩을 발주할 계획으로 현대미포조선과 협상 중이라고 언급됨. 원하는 납기는 2025년 하반기~2026년으로 알려짐. ONE도 HD현대중공업과 LNG DF선 발주를 논의 중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https://bit.ly/3GogRYl>)

Panamax bulkers hit multimonth high during South America grain harvests

북미 대두 및 옥수수 수확시즌으로 Panamax 벌크선 운임이 6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전체 대두 수출량의 35%를 담당하는 브라질은 이번 3~6월 수확기에 약 9,230만톤을 수출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7,700만톤 수준이었다고 알려짐. 수확기에 접어들며 3월 28일 이후 Panamax 5TC 운임은 18.6% 상승해 지난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http://bit.ly/3Kkgkb9>)